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18 년 7 월 15 일, 13 시 45 분
알바노 라지알레(로마) 사도의 모후 병원에서,
아돌로라따 마리아 로사 빨마 수녀님 선종
ADDOLORATA SR MARIA ROSA PALMA
86 세, 68 년 간 수도생활

연중 제 15 주일, 시편저자와 함께 주님의 자비를 청하는 가운데 마리아 로사 수녀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돌로라따는 7 형제 중 셋째로, 1931 년 11 월 2 일, 프로시노네의 베롤리에서 태어났으며, 같은 해 원죄 없으신 동정녀 잉태 대축일에 산 안젤로 빌라(FR)의 성 미카엘 대천사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45 년 11 월 16 일 젠자노로 입회를 했으며, 5 년이 지난 후 8 월 14 일에 성 베드로 악귀(PG)에서 수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루시아(RO)로 파견되어 자수에 대한 뚜렷한 선향을 보이며 자수선생으로 활동했습니다. 연피정을 마친 후에, 1953 년 10 월 7 일 마싸 마르타나에서, 마리아 로사는 빠스토렐레의 첫 그룹 수녀들과 함께 -1951 년 8 월 15 일에 했던 첫 번째 사적 서원을 인정하여- 성 베드로 악귀에서 복자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손 안에 단순 공적 서원을 했습니다. 1956 년 8 월 10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마리아 로사 수녀는 양성기 초기부터 수도회와 사람들과 가까이하며 관계를 돌보는 사목 사도직에 대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음악적 소양을 가지고, 미소 띤 얼굴로 환대하며, 선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1956년부터 1966년까지 Cassina De' Pecchi (MI), Medolla (MO), Longa (VI) e Avellino 공동체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1965과 1975년에는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 돌아와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후에 일반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려 공부했습니다. 1967년부터 로싸노 칼라브로 (CS) 공동체의 원장 소임을 맡았습니다.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동시에 Cittaducale (RI); Capoliveri (LI); Castellammare (NA) 등의 여러 지역의 가정사목에 힘썼습니다.

마리아 로사 수녀님은 20년 넘게 만성 간염을 앓았으며, 후에는 간경화로 진전되어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서 불구하고 Pannarano (BN), Pieve di Campo (PG), Napoli e Pescara 공동체에서 사목 사도직을 계속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마리아 로사 수녀는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더 잘 받기 위해 페스카라 공동체를 떠나 알바노 라지알레의 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중한 문제들과 함께 간경화가 심해져 입원해야 했으나 신장의 무리가 와 상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자신의 상태의 중함을 알고 있었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 주님께 최종적으로 자신을 맡길 준비를 하기 위해 마리아 로사 수녀님은 병자성사를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주님께 마리아 로사 수녀님의 삶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수녀님께 당신이 기쁘게 섬기고 사랑했던 교회와 수도회의 여정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 로사 수녀님을 사랑으로 돌보아 준 알바노의 수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Sr Aminta Sarmiento Puentes

총장

16 luglio 2018 년 7 월 16 일, 중국-선양

